

대박은 없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표현이 어느 덧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박(大舶)은 본래 "큰 물건이나 이득"을 일컫는 말인데 또복권 1등 당첨으로 그야말로 인생역전(?)을 한다거나 한 건을 크게 해서 부자가 되는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하며 작게는 삼각김밥을 잘 말아서 매출을 많이 올려도 대박을 터뜨렸다고 이야기를 한다. 흔히 출판사들은 베스트 셀러 한권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가 있고 음반도 히트하면 돈 방석에 올라앉기도 한다. 그러나 섭섭한 이야기이지만 인쇄업계에서는 대박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랜 기간 좋은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발전을 이룬 경우는 더러 볼 수 있지만 큰 인쇄물 한 건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나마 관행적으로 지켜지던 '연고권'이 총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거액의 인쇄물은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으로 일감을 가져가봐야 속빈 강정인 경우가 적지않은 것이 인쇄업계의 현주소이고 보면 대박은 그저 남의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문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히트 상품을 만들 수도 없고 일시적 물량증가에 맞춰 시설을 증설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자주 보아왔다. 연간 2천만달러 이상의 인쇄물을 미국 등지로 수출하면서 계속 시설을 확장, 잘 나가던 S사가 IMF



인쇄사마다 경영여건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기업경영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인쇄사들이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영거주춤한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태다



사태에 따른 외환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오너는 손을 떼고 법정관리를 거쳐 매각되는 수순을 밟았으며 자금 뒷받침이 충분치 못한 채 대기업을 인수했던 K사가 얼마전 부도처리되는 비운을 맞보기도 했다.

최근에는 젊은 2세 경영인에게 가업으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탄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온 C사가 1차 부도처리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코

스닥에 상장되었던 전통의 B사도 기업 평균보다 훨씬 낮은 채무비율과 재무구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식총액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인쇄사마다 경영여건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기업경영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인쇄사들이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영거주춤한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땅값이 올라 자체공장을 가진 인쇄사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쇄업은 특수도시형업종으로 분류되어 도심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평당 땅값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위치에다 인쇄공장을 넓게 자리잡을 수도 없으며 공장에 세들어 있는 인쇄인들은 건물주인 좋은 일만 시킨다는 하소연이다. 서울 중구에서 최신행 4색, 5색 인쇄기 2대를 갖추고 임대공장에서 연간 3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장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인쇄업경영이 만만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뜨거운 여름 햇볕이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올 7월은 덥고 8월은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는데 행여나 인쇄인들에게 짜증스럽고 힘겨운 비수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오세익 · 편집주간〉